

# 다시 만난 세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생태계가 펼쳐진다. 율리아 아이오실존은 중력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경계를 허문다. 대지와 바다, 하늘, 인간과 생물까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제로, 태초로 돌아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귀여운 해파리와 함께하는 전시 <Zero Gravity>는 10월 3일까지 파운드리 서울에서.

text SUN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과장되게 말하면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떠다니고 있죠.(웃음) 색채는 더 선명해졌고요. 이번 전시 <무중력(Zero Gravity)>은 어떤 생태적 풍경 안에서 우리가 더욱 호기심 넘치게, 외부로 향해 탐험하는 모습을 그리며 작업했어요.

**파운드리 서울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이네요. 자주 오는 곳인데도, 구조가 좀 바뀌어서 다른 갤러리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요청한 것들이 있다고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여러 모험을 감수했거든요. 독특한 매체를 사용하거나 그 경계에 놓여 있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그 범주와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실험들을 했어요. 설치와 세라믹 작업이 함께 만들어내는 공간적이고 연극적인 경험을 관람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첫 전시 <녹터널(Nocturnal)>과는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는 인상부터 듭니다. 한편 이전 전시와 이번 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라는 시대 상황 안에서 위안을 찾는 데에 집중했어요. 불확실한 시대를 도피하고 싶은, 무척 자연스러운 감각인 거죠. 버섯, 뱀, 인어, 이런 상징적 모티브를 써서 좀 더 동화책처럼 꾸몄었고요.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의 불확실성과 압박을 넘어서려는 시도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번 전시도 이런 점에서 연결되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하고, 열린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르지만요. 스케치하는 식의 통제, 계획보다는 더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이 회화들이 발전하길 바랐어요. 무의식이 이 작업을 이끌도록 내버려두려고도 했고요.

**지난 전시가 팬데믹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전시는 어떤 환경 안에서 작업했나요.**

사실 제 감각을 크게 변화시킨 일은 부모가 된 경험이에요.(웃음)

**보다 개인적인 환경 안에서 이뤄졌군요. 축하해요!**

부모가 되어보니 생명의 순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했어요.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나선형, 나무, 껍데기, 다른 형태의 안식처, 그리고 재생, 이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도 그 덕분이고요.

**부유하는 해파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소 같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작했어요. 회화 작업에 쓰인 것과 같은 반투명 직물로 거대하게요. 이 공간이 덕분에 유토피아 같고, 열린 공간 같죠. 직접 걸어 들어와 전시장을 가로지르면 제 그림들이 가까이 확대할 거예요. 관람객의 상상력으로 이 공간이 완성되길 바라구요.

**전시명 <무중력(Zero Gravity)>에서 어쩌면 이 공간이 제3의,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생태계를 그린 게 아닐까 유추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무중력이에요. 작품이 허공에 매달린 채 무게감 없이 부유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세계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듯하고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식물, 해양생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이 혼성적 존재들처럼요. 익숙하지만 낯선 이 존재들이 어떤 모호함을 만들어낼 때, 저는 제 정체성과 직관이 특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요.

**잠깐 이 전시장 안에 서서, 제가 인간이 아니면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웃기지만요.**

하하. 여기 온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생명체로서 감각하길 바라요. 그런 호기심만 더해진다면 이 전시가 무척 활발해질 거예요. 마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렸다는 느낌도 드네요. 단지 인간의 눈에만 포착되지 않는 것들이요.**

관객들이 이 전시를 경험하도록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고민할 때, 힐마 아프 클린트(Hilma af Klint)가 마침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어줬어요. 직관과 보이지 않는 힘, 상상을 통해 이미지를 만드는 작가잖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채 떠다니는 듯한 이미지,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감각이 느껴지고요. 이번 전시에서 저 역시도 그런 감각을 공유하고 싶어요.

**작업에 신화, 민담, 자연사, 생태학 같은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시가 방대한 이야기의 집합 같고요.**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와 이미지가 좋아요. 그리스 신화나 유대교 도상학, 테런스 맬릭(Terrence Malick)의 영

화 같은 것들이요. 자연과 생명 순환의 이미지 가운데 깊은 철학 이야기가 있죠. 그게 제게는 더욱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여백 같아요! 제게 내러티브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보다는 영화처럼 여러 장면이 이어지는 경험이에요. 회화가 흥미로운 건, 각 작품이 하나의 독자적 장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작품이 하나하나 놓였을 때 리듬이 생겨나고, 관객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비로소 더 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란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에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작가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동심을 향하는, 동화적 요소가 가득해요.**

모호하면서, 각자 개인적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거예요. 제 작업에는 반드시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해요.

**작가에게 가장 원형이 되는 동화가 있나요.**

다섯 살 때 일본 애니메이션 버전의 <책과 공나무>를 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 작업의 깊은 밑바탕이 되어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돌아켜 보면 그 작품이 지닌 생생하면서도, 낯설고 기묘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어요. 거대한 공나무, 구름, 거인들, 한 아이가 다른 세계로 기어 올라간다는 발상 같은 것들이요.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환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감각이 저를 크게 자극했어요.

**동화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들이 있죠.**

세계와 세계 사이에서 자라고, 뻗어나가고, 가로지르잖아요. 그런 모티브가 지금까지도 제 회화와 작업 전반을 이루는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아켜 보면 <책과 공나무>가 스케일과 변형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한편 너무 아름답지만은, 온화하지만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동화를 읽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처럼요.**

더 깊은 층위가 있는 거죠. 감정과 상징성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회가 담겨 있어요. 특히 사회의 이면이요. 동화라는 언어가 가진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현실적인 면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마침 정원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궁금해요.**

제가 어릴 적 란탄 숲에는 온갖 종류의 고사리가 살고 있었어요. 땅 위에서 작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웅크려 있던 고사리가 자라나 마침내 공작새처럼 화려하고 무성한 잎을 뽐내는 생명체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관찰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작업에 고사리 같이 '소용돌이치는' 식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네요. 사실 정원을 가꾸는 생활에 큰 열정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 전시의 글을 써준 제니퍼 히기(Jennifer Higgle)가 제 작업실에 왔을 때 정원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며 정원을 가꾸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연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제게 중요해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은 생태계를 관찰하며 제 작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요.

**흙과 광물이라는 아주 물질적인 재료와, 빛과 공기를 통과시키는 실크를 함께 쓰는 이유도 짚고 싶었어요. 관념도 재료도 모두 상반된 것을 오간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세라믹은 대지와 맞닿아 있는 물질적이고 무게감 있는 매체죠. 반투명한 천은 빛과 공기를 투과시켜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견고함과 유연함, 물질과 공기, 신체와 공간... 이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탐구하게 돼요. 그런 대비는 제가 꾸준히 다루고 싶은 중요한 감각 중 하나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을이 코앞이네요. 독서광이라고 들었어요. 작가가 평생 지내고 싶은 단 한 가지 책이 있다면요.**

제게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이라면, 크레이그 벤티 필립 거스턴의 회화를 다룬 <Philip Guston: The Studio>요. 이 책은 작업실 자체를 하나의 심리적 공간으로 바라봐요. 작업실이 계획을 실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가 자연스레 '발견되는' 곳이라는 생각은 제가 추구하는 작업 방식과 맞닿아 있어요. 제가 작업하는 회화들, 정체성 같은 것이 맞부딪히며 사고가 일어나는 무대인 거죠. 이 책이 지닌 태도가 제가 작가로서 지향하려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 작업실에서 시작된 사고가 이렇게 밖으로, 전시장으로 나오게 됐네요. 저도 해파리들과 부딪혀 볼래요.(웃음)**

이 해파리들이 파운드리 서울의 공간을 장악하고 유평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곧 봐요. ■